	<b>보 도 자 료</b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미래창조 금융</li><li>• 따뜻한 금융</li><li>• 튼튼한 금융</li></ul>
	<b>6.23(화) 09:00부터 보도 가능</b> <b>[별첨1. 발표문 10:30부터 보도가능]</b>		

작성부서	(금융위원회) 서민금융과, 금융정책과, 중소기업과 (기획재정부) 자금시장과 (행정자치부) 새마을금고지원단 (농림축산식품부) 농업금융정책과 (보건복지부) 자립지원과 (해양수산부) 수산정책과 (산림청) 사유림경영소득과 (중소기업청) 기업금융과 (금융감독원) 서민금융지원국, 대부업검사실 (신용보증재단중앙회) 개인보증부 (미소금융) 지정재단지원부 (한국자산관리공사) 서민금융총괄부 (신용회복위원회) 제도기획부		
책 임 자	김기한 과장(2156-9470)	담 당 자	이인욱 사무관(2156-9471)
	권대영 과장(2156-9710)		최성규 사무관(2156-9475)
	윤영은 과장(2156-9850)		임준빈 사무관(2156-9478)
			박보란 사무관(2156-9472)
			양병권 사무관(2156-9718)
			박진애 사무관(2156-9853)
			민인영 사무관(2156-9856)
	김진명 과장(044-215-2750)		윤지희 사무관(044-215-2754)
	황상규 단장(2100-4280)		박효영 사무관(2100-4282)
	박순연 과장(044-201-1751)		김경은 사무관(044-201-1760)
	임혜성 과장(044-202-3070)		김은영 사무관(044-202-3072)
	전재우 과장(044-200-5420)		하두식 사무관(044-200-5429)
	이문원 과장(042-481-4190)		임원필 사무관(042-481-4155)
	황영호 과장(042-481-4545)		염민호 사무관(042-481-4385)
	조성목 선임국장(3145-8150)		장 환 팀장(3145-8136)
배 포 일	양일남 실장(3145-8260)		엄주동 팀장(3145-8262)
	안재신 부장(042-480-4238)		김지연 차장(042-480-4066)
	유재욱 부장(2084-7940)		이석희 대리(2084-7974)
	김동현 부장(051-794-3400)		이진일 팀장(051-794-3401)
	민영안 부장(6362-2024)		신진환 수석(6362-0278)
배 포 일	2015.6.23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8매

## 제 목 :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 4.5조원(47만명) → 5.7조원(60만명)으로 확대  
→ 2018년까지(3.5년간)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정책자금 신규 공급
- ② 「대부업법」 상 최고금리를 현행 34.9% → 29.9%로 5%p 인하 추진  
→ 30%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270만명의 금리부담을 4,600억원 경감
- ③ 연체자 대상 자활 패키지 지원상품 도입 (채무조정-일자리-재산형성)  
→ 월 10만원씩 성실저축시 3년이 지나면 최대 1,300만원 수령 가능

## I. 추진 배경

-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 왔음
  - 국민행복기금(41만명), 신용회복위원회(15만명) 등을 통해 금융채무 연체자 56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('13년~'14.5월)
  -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(햇살론, 새희망홀씨, 미소금융, 바퀴드림론)을 통해 112만명의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책자금 11조원을 공급('13년~'14.5월)
- 더 나아가, 정부는 보다 체계적·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현장방문 및 수요자 실태조사('15.4월, 금융硏) 등을 실시
  - \* 금융위원장, 현장 근무자 간담회(4.2) 및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(4.14) 등
- ⇒ 현장의 목소리 수렴, 관계부처·금융권 협의 및 당정협의(6.23) 등을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「3대 정책방향 및 7대 핵심과제」 마련
  - ※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강화 :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41번, 국정과제 30-2-5번

## II.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

- ◇ ❶ 서민금융 공급확대·금리 인하, ❷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, ❸ 서민 자활·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'3대 정책방향'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를 마련

### 1.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융부담 경감

- ① '15년말 종료예정인 햇살론·새희망홀씨를 5년간('16~'20년) 연장하고,
  -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.5조원(47만명)에서 연 5.7조원(매년 60만명 수혜 예상)으로 확대 추진
- \* ❶ 햇살론 2.0조원→2.5조원 확대 추진 / ❷ 새희망홀씨 2.0조원→2.5조원 확대 추진  
❸ 미소금융 0.3조원→0.5조원 확대 추진 / ❹ 바퀴드림론 0.2조원 수준 지속 공급

- ② 「대부업법」상 최고금리를 현행 34.9%에서 29.9%로 5%p 인하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, [대부업법 개정사항]

○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.5%p 인하('15.8월~)

## 2.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

- ①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'긴급생계자금 대출' 신설('15.8월)

\* 새희망홀씨·햇살론·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(대출심사 최소화, 거치기간 부여 등 혜택)

-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한도(월 50만원) 신용카드 발급('15.7월)  
(신용카드 성실이용 기록이 누적되면,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)

\* 국민행복기금·신복위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 대상 발급 지원

## 3.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
- 주거, 교육,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·강화

### ① (주거비) 2금융권 전세대출자,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 강화

\*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(7~8%대) → 은행 저금리대출(3~4%대) 전환 확대('15.下)

\*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(최대 2,000만원·2.5%, '15.7월)

### ② (고령층) 저소득 고령자(65세 이상) 대상 보험료 지원 신설

\* 저소득 고령층(차상위계층 이하)에 대해 기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('15.下)

### ③ (장애인)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 신설

\*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 대상 최대 1,200만원·3%로 대출('15.7월)

### ④ (교육비)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후 학교비,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 저리대출 지원 [최대 500만원·4.5%, '15.7월]

#### 4.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

- ①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,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'징검다리론' 도입('15.11월)

\* 장기간(예: 3년간)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천만원 대출

- ②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(저축은행 등) 간 연계영업을 확대하여, '10%대 中금리 대출' 시장을 활성화('15.9월~)

#### 5. 고용·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

- ① 고용·복지+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, 서민금융과 고용·복지 지원 간 연계 강화 [고용부·행자부·금융위 등 협업]

\* '15년중 최대 27개소 고용·복지+센터에 서민금융 인력 입주·지원

- ② 미소금융 상품(창업·운영자금 등) 지원대상을 확대하여,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지원을 강화('15.11월)

\* (현행) 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 이하자

→ (개선) 6등급&연소득 4,0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,000만원 이하자

- ③ 채무 연체자에게 ❶채무조정, ❷일자리 제공, ❸재산형성(저축상품)을 연계 지원하는 '자활 패키지 신상품' 도입 [복지부·금융위 등 협업, '15.9월]

\* ❶ 국민행복기금·신복위, 채무조정 중인 자 중 대상자 추천 → ❷ 복지부 자활 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연계 → ❸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(내일키움통장, 3년간 월10만원)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(최대 25만원) 지원

➡ 3년간 성실하게 근로·저축시 최대 1,300만원까지 수령 가능

- ④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(Micro-saving) 지원('15.9월)

\*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배수를 미소금융재단이 매칭하여 저축

➡ 향후 만기시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(750만원 수준) 마련 가능

## 6. 채무연체자 재기지원 강화

- ①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%에서 60%로 상향('15.8월)
- ②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(예: 3년)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('15.下)

## 7.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

-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
  - \* 금년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인 「서민금융생활지원법」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

## Ⅲ. 기대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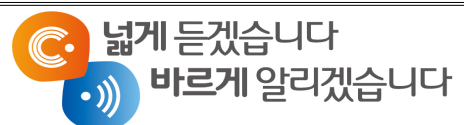
- '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가능
  -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 4.5조원(47만명)에서 연 5.7조원(60만명)으로 확대하여 '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을 신규 공급
  - 주거·교육·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통해 연간 17만명에게 연 0.6조원 신규 공급 가능('18년까지 총 60만명, 2조원)
- 대부업법上 최고금리 인하로 30%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,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가능
- '18년까지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가능

- <별첨> 1. 금융위원장 발표문  
2.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
3. 주요 Q&A  
4. 주요 상품 참고자료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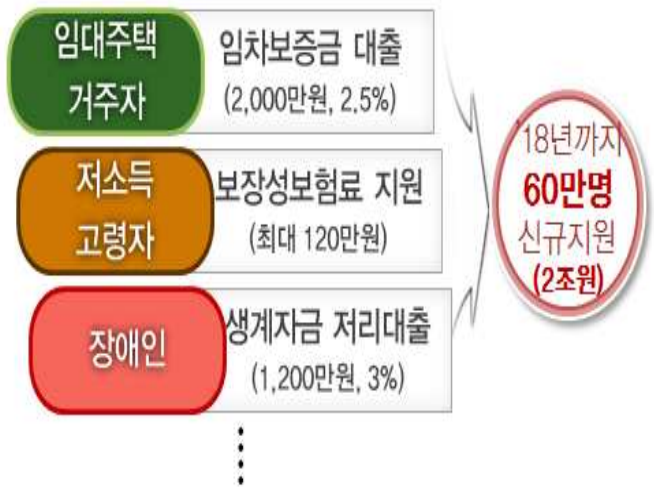
〈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〉

- 미소금융, 햇살론, 새희망출세, 바깥드림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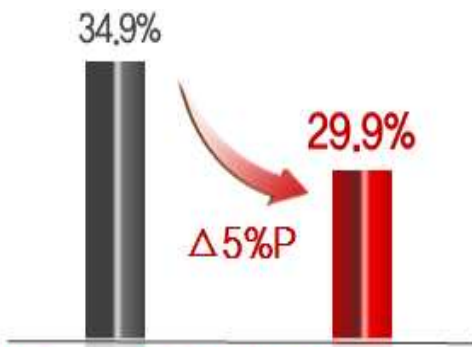


- ✓ '18년까지 210만명에게 신규 자금공급(20조원)
- ✓ 대출 상한금리를  $\Delta 1.5\%P$  인하(12.0→10.5%)

〈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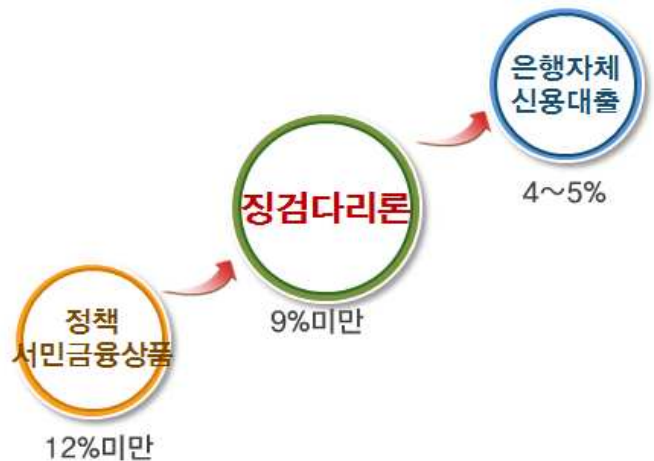


〈법상 최고금리 인하〉



- ✓ 270만명에게 4,600억원 이자경감 혜택

〈제도금융권 정착 지원 : 징검다리론〉



〈연체자 자활 패키지 지원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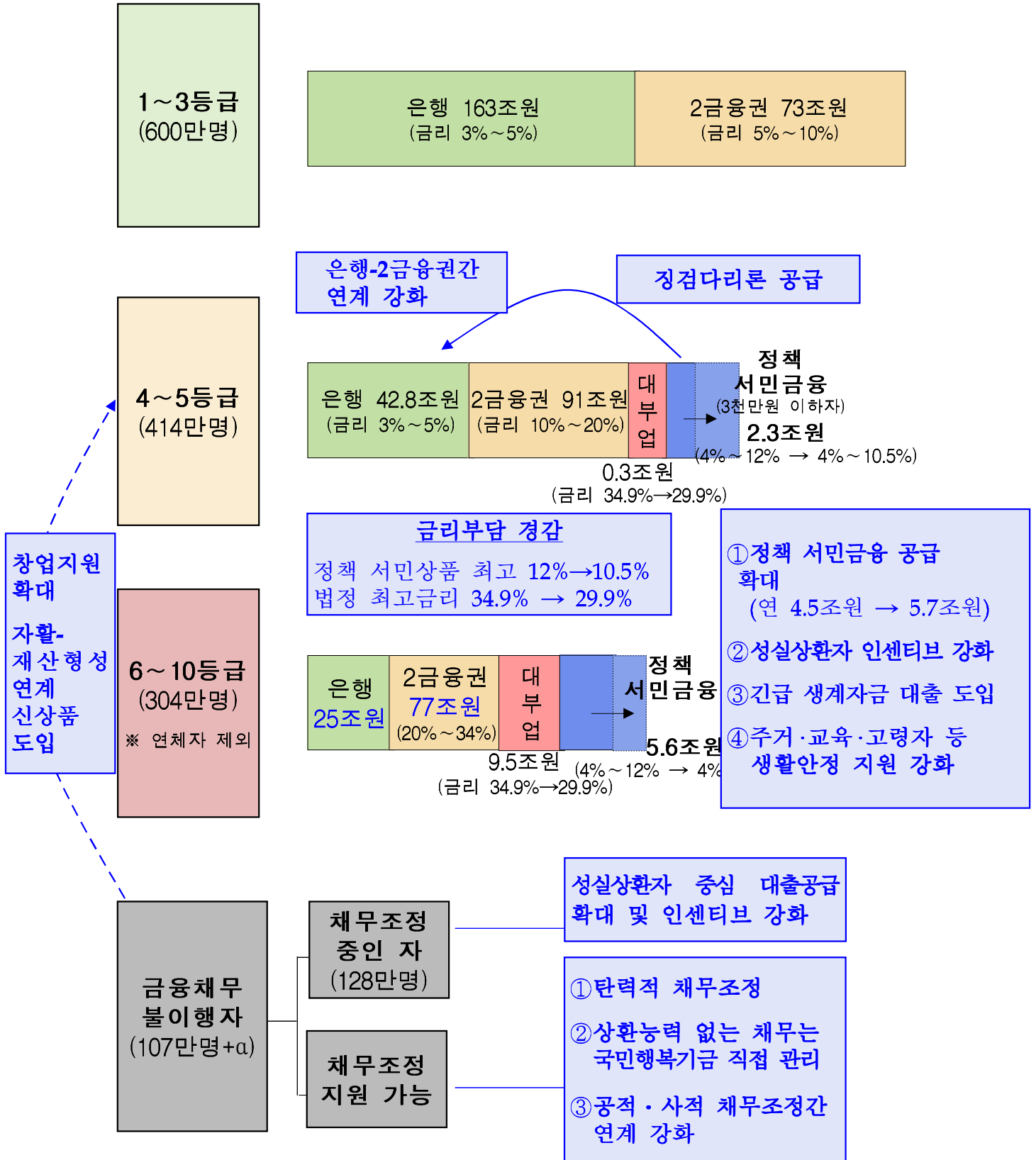


〈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재기 지원〉



< 대상별 지원정책 및 기대효과 >

\* NICE신용평가정보 등록 신용대출 보유자 약 1,450만명 대상(대출잔액 기준)



상품명	수혜 사례
• 성실상환자 징검다리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A씨(30대 중반, 남)는 소득증빙 불가의 사유로 은행 대출이 거절되어 저축은행을 통해 햇살론을 이용</li> <li>○ 대출금 전액 상환 후 부모님 병원비로 추가대출이 필요하였으나 신용등급 상승, 소득증빙 어려움으로 햇살론 및 일반대출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</li> </ul> <p>⇒ 은행 징검다리론을 안내받아 보증기관의 보증 없이 신용대출 이용</p>
• 일자리-재산형성 연계 상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B씨(50대 초반, 남)는 은행 대출 1,800만원이 연체되어 행복기금에서 관리중</li> </ul> <p>⇒ 행복기금 안내로 일자리-재산형성 연계 프로그램에 가입, 자활근로로 받는 인건비 중 월10만원씩 저축</p> <p>- 행복기금 취업센터를 통해 새 일자리도 구하여 본인저축액과 지원금을 포함해 1,300만원의 목돈을 마련</p>
• Micro-Saving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상위 계층으로 고1, 중2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C씨(40대 후반, 여)는 미소금융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미용실을 창업한 후,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 하였으나, 목돈마련이 여의치 않아 미소금융 재산형성 지원 상품을 신청</li> </ul> <p>⇒ 빠듯한 소득 이지만, 자녀들과 함께 스스로 돈을 적립하고 소비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만기 경과(5년)시점에 75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거주지 보증금 인상분으로 활용</p>
•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점상을 운영하는 고1, 중2 두 자녀를 둔 E씨(40대 중반, 남)는 최근 영업악화로 자녀 학비(6개월 분 70만원)를 미납하여 학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중 미소금융에 교육비 대출 신청</li> </ul> <p>⇒ 미소금융의 저리 교육비 대출 100만원을 받아 미납된 학비를 마련하고, 매월 2만원의 원리금을 분할 납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</p>